

이웃

[잇다: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다]

vol. 06

2020.1 | 원고개 마을소식지





즐거운 마을 살이

(취재/원고-정지우)

원고개 마을축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 한 편의 영화 같은 무대들과 플리마켓을 완성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감문을 시작하고 싶다. 우선 마을에서 한 마음으로 준비한 만큼 원고개마을 플리마켓과 음악회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진 것 같다. 원고개마을 플리마켓에서는 캐릭터 솜사탕 만들기, 떡메치기, 페이스 페인팅, 꿀, 옷과 책 등을 파는 장터가 있었다. 그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캐릭터 솜사탕이었다. 플리마켓을 진행하는 내내 줄이 끊이지 않았고, 마무리가 되어 가는 중에도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 다음으로 떡메치기, 직접 만든 떡들은 따뜻한 온기와 함께 그 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다음으로는 플리마켓이 마무리 된 후 열린 원고개마을 음악단의 음악회였다.

수많은 무대 중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었던 플룻 연주는 나와 나이대가 비슷한 친구들이 연습을 해서 그만큼의 완성도를 보여줬다는 게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예전에 호기심에 플룻을 붙어보려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깨달았다. 플룻은 내 생각보다 더 어렵다고, 리코더처럼 입에 대고 불기만 하면 소리가 새어 나오는 악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후로는 악기에 손을 대지 않았다. 성격상 악기와 맞지도 않았던지라 늘 멀게만 느껴졌는데, 공연을 보면서 나도 언젠간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 다음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기타였다. 노래를 부르면서 한 악기를 연주하는 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직접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함께 부른다는 건 꽤 머리가 바빠진다. 그래서, 보는 내내 나오는 감탄사를 감출 수가 없었다. 신나는 분위기에 맞게 흘러 나오는 멜로디들이 공연을 끝마친 후 큰 박수를 불러왔다.

이 외에도 색소폰 연주와 어린 아이들의 춤, 북, 노래 등과 같이 여러 개의 공연을 선보였다.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닌, 여러 사람의 노력과 맘이 들어가 더 큰 빛을 빚어낸 게 멋있었다. 지루하기만 한 시간을 행복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를 내년에도 다시 맞을 수 있길 바란다.

(마을의 청소년 정지우 학생이 써 준 소감글입니다.)



원고개마을 주민협의체 이야기

(글 우화주)

우리 마을에 뭐 볼 거 있다고?
비산 2,3동에 전화해야 되는데 잘못
한 거 아이가?

거제시 옥포동에서 우리 원고개마을
에 견학을 오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처
음 보인 반응들입니다. 비산1동 원고
개마을 확실하다는 얘기에 약간의 부



담과 설렘으로 선진지 견학팀 맞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비라고 해야 마을 소개하는 자료 만들
고 답사코스 확인하고 상태가 어떤지 둘러보는 정도였죠. 40명이 넘는 인원이 하필 날씨가 추워진
12월 6일에 우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30분 정도 원고개마을 사랑방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소개하
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계단길, 목공소 공사현장, 벽화조성지, 마을텃밭, 마을정원,
원고개시장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 방문지는 원고개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정시간을 훌쩍 넘
겨 마을을 둘러보는데도 일정에 조바심내지 않고 시종일관 궁금증을 쏟아내는 답사팀의 열정이 살
짝 부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무엇보다 마을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마을사람들이 성장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하니 첫 답사일정은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답사때 저희가 찍은 사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들
원고개 얘기들만 하시는게 참 흐뭇했습니다.”

답사를 기획했던 담당자가 보내온 문자입니다. 원고개마을 사람들에게 뿌듯한 경험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12월 9일 저녁, 원고개 사랑방에서 원고개마을 주민협의체 교육이 있었습니다. 마을강사로 유명
한 이형배 선생님과 함께 ‘마을’이 뭔지, 앞으로 마을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거시적인
얘기를 시종일관 귀에 꽂히는 목소리로 유쾌하게 풀어보았습니다. 마을의 변화가 나의 행복과 일상
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재밌게 해 볼 예정입니다. 마을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공부도 함께하면서
다과도 나누는 즐거운 경험을 좀 더 많은 이웃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월간 원고개

9월

9월 4일~11월 13일

생활영어

11월

10월 26일

원고개마을축제

11월 13일

복지사랑방 개소식

교육나눔 포트럭파티

11월 15일

11월 21일~12월 19일

스마트사진교실



9월 16일~10월 3일

뜨개방

9월 28일~12월 7일

벽화



10월

10월 4일~10월 30일

원고개마을 복지계획단



업사이클링

11월 25일~12월 16일



12월

12월 9일~12월 23일

협동조합 교육



원고개마을 동아리 원고개 음악단

(인터뷰어-김영미, 우미화)



원고개 음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유은주 선생님과 다락방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눴다. 단장님 소개를 부탁드린다는 말에 “안녕하세요 국일음악학원 유은주입니다.”라고 수줍게 짧은 인사를 건넨다. 올해 처음 맡은 단장이라는 직책이 아직 조금은 어색한가보다. 박은희 교육 나눔 위원장님과의 인연으로 교육 나눔과 연계 된 일을 하던 중 전공을 살려 음악회를 기획, 연출하게 되었다며 단장을 맡게 된 계기도 덧붙인다.

Q. 아직 음악단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 데 소개 좀 해 주세요.

A. 우쿠렐레, 기타, 플루트, 카혼, 풍물, 난타팀은 활동하시던 팀들이구요, 올해는 어린이 댄스팀이 함께 공연을 했어요. 주로 어른들 위주의 공연이었다면 아이들을 출연시켜 재롱잔치처럼 아기자기한 분위기도 조금 담고 싶었어요.

Q. 음악회를 기획할 때 가장 중점을 둔 건 무엇인지요?

A. 곡 선택에 있어서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어요. ‘라라라’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노래를 잘 알지 못 해도 그 부분은 입가에 맴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사가 없이 악기 연주만 하는 곡들도 선물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전해주죠. 원고개 음악단은 마을 주민과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며 감정을 공유하며 보다 행복한 동네 생활을 했으면 해요.

Q. 음악회를 하면서 어려움이나 가장 좋았던 점을 한가지씩만 얘기 해 주시죠.

A. 좋았던 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려웠던 점은 별로 없었는데..하하하 (그러면서 살짝 얘기하네요) 별다른 연습공간이 없어 저희 학원에서 연습했는데 4층이다 보니 악기 이동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준비과정이나 이후 마무리도 모든 팀원들의 협력으로 잘 마무리 된 음악회였다고 생각해요.

Q. 다른 악기나 앞으로 음악단 활동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A. 내년에는 실버합창단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더 풍성한 음악회를 기대해도 되겠네요. 다양한 악기에 폭 넓은 연령대로 훨씬 많은 공감대가 형성될 듯 하네요. 악기에 대한 얘기는 없으신데 살짝 욕심을 내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Q. 이번 음악회를 원고개 음악단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어울리지 않는 악기들이 모여 함께 합주 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죠.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발전되어 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어렵지 않다. 모든 것이 마음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생각해요. 모이고 만나고 배우고 관계하는 모든 마을 활동이 좋았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마을 축제여서 훈훈했어요.





원고개마을 Star

‘남정걸’씨를 만나다

(인터뷰어 문명경)



이번 마을 소식지에는 우리 동의 진정한 스타, 권택현 어린이의 가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택현이 어머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Q. 비산 1동에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A. 평리1동에 살다가 비산1동에 거주하고 계신 지금의 남편을 만나 2006년에 조금은 먼(?) 비산 1동으로 시집을 오게 되어 쭉~살고 있어요.

Q. 아버님을 제외하고 어머님과 자녀분들 모두 연주를 하고 계신데요~어떤 마음 가짐으로 활동하고 계신지 여쭙어봐도 될까요?

A. 부족한 연주실력이지만 저와 아이들 모두 마을 주민여러분들께 즐거운 마음으로 연주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Q. 혹시 아버님께서도 연주하실 수 있는 악기가 있나요?

A. 네~있어요.(오우~~) 뛰어난 실력은 아니지만 취미정도로 하모니카를 조금 연주할 줄 알아요.

Q. 어머니는 기타팀인 비행기(비산동의 행복한 기타동아리)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동네에 기타 동아리가 생긴다고 해서 기타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친구와 함께 시작하게 되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기타라 어렵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차근차근 배워가며 부족한 솜씨지만 봉사 연주도하며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Q. 다음은 택현이 어린이에게 질문을 할게요. 택현이 어린이는 장래희망이 색소폰 연주자 인가요?

A. 저는 색소폰 연주자도 되고 싶지만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Q. 아! 색소폰 연주도 잘하는 의사도 좋겠네요.^.^ 앞으로도 연주봉사를 계속 할 건가요?

A. 악기가 무거워서 조금은 힘들지만 엄마가 연주공연을 하라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Q. 연주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참엔 힘들고 떨어져 가기 싫을 때 도 있었지만 막상 연주를 하고 나니 뭔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다음에도 계속 연주를 하고 싶어요. 또, 길거리에서 저를 알아 봐 주시는 분도 계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Q. 다음은 다희양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다희양은 플룻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이 있나요?

A. 악플룻이 고음악기라 호흡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먹는 걸 좋아하는 저는 연주전에는 간식을 마음대로 못 먹는 것이 좀 아쉬워요. 입으로 부는 악기라 양치를 꼭 하고 악기를 붙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Q. 꿈이 플루티스트라는 말이 있는데 그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뭔가요?

A.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요~ 플룻을 불고 있을 땐 내가 행복하고 계속 플룻을 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Q. 마지막으로 연주자 가족으로써의 행보는?

A. ^^행보라하기엔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전문가도 아닌 저희 가족이 이렇게 마을소식지 인터뷰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해요.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저희도 영광입니다.-편집팀 일동-) 부족한 실력이지만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된다면 우리마을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인터뷰하는 내내 웃음이 떠나질 않았는데요~너무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들어가 살고 싶을정도로) 지금까지 권택현 어린 가족의 인터뷰였습니다.

원고개마을의 소소한 이야기

구본녀 | 원고개마을 복지사랑방 개소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서 예산 1억을 받아 추진한 원고개마을 복지 사랑방이 11월 13일에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비워져 있던 거창경로당 2층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의 사랑방 공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공모사업 진행할 때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사 중에도 구청 담당자가 직접 발로 뛰며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정서에 맞게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 사업이라서 더 애정이 가는 공간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개방하고 우리 마을 교육 나눔은 아이들을 위한 영어수업, 집 밥 만들기, 원데이 쿠킹 클래스 등의 교육을 하고, 주민 협의체에서는 월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간 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어르신들께 금주, 절주, 구강, 영양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공간이 생기므로 주민들의 삶 의질이 향상이 되고 웃을 일도 더 많아진 것이 “원고개마을 복지사랑방”이란 이름처럼 아이들도 어른들도 원하는 진정한 복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은정 | 우렁각시

어느 날 부터 저희 집 앞에 썰이나 과일, 과자 등등 먹을거리들을 놓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어떤 분인지 궁금하고 뵈게 되면 감사인사를 하고 싶지만 몰래놓고 가셔서 쉽지가않네요~ 혹시라도 이음책을 보실까하는 맘에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리고 싶어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우화주 | 목공소

우리 마을에 목공소가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계단길 옆 엄청나게 험한 모습으로 방치되던 가압장 자리가 탈바꿈 중이라고 하네요. 소품 가구도 만들고, 마을 공용으로 사용할 미니 벤치 등도 만들 생각을 하니 기대가 되긴 하네요. 꽤나 무서워 보이는 장비들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함께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박옥선 | 남자들의 집밥~♡

11월 9일 즐거운 주말 오전 원고개 사랑방에서 남학생들만의 집밥만들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초,중 고학년대상으로 '내가 만든 부모님 생신 상'이라는 주제로 요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요리하는 시간동안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박옥선 | 원데이 쿠킹클래스~♡

11월16일 토요일 활기찬 주말~ 엄마와 함께하는 원데이 쿠킹클래스가 있었습니다. 형,누나,오빠,언니,동생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재료손질에서 완성까지 솜씨를 뽐내면서 맛있고 이쁘게 만든 도시락을 가지고 옥상 피크닉도 즐기는 행복한 시간은 가졌습니다. 엄마와 친구들이 직접만든 샌드위치, 치킨샐러드, 소떡소떡은 모~두 꿀맛이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된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박옥선 | 오감만족 숲체험~♡

10월 5일 토요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아이들과 교육나눔 위원님들과 함께 대구 북구에 위치한 오봉산 오감만족 숲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숲 해설사의 재미난 설명과 체험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가까운 곳에 좋은 숲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구본녀 | 사라진 월계수

원고개마을 정원사 수업을 한 비산지하도 근처에 주민들이 모여서 쓰레기도 치우고 삽질도 열심히 해서 구덩이를 파고 식재를 한 월계수나무가 실종되었어요. 다음 수업 때 2차 식재를 했는데 이름표만 남기도 또 실종이 되었네요!! 구덩이만 행하니~ 속상하고 황당한 마음이지만 가져가신 분이 잘 키워주기만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힘들게 가꾼 정원에 나무를 뽑아가신 분 혼자 보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살며시 가져와서 다시 심어주세요, 제~~발



구본녀 / 울 아버지 실종사건

치매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아버지께서 아침부터 고향간다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집을 나가셨어요. 조카가 바로 따라 나섰지만 사라지셔서 어른들은 북비산 네거리, 칠길공원 달성공원, 아이들은 서부정류장, 북부정류장, 대구역으로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어 결국 실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종 신고 후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니 서대구 kt전화국 근처에서 신호가 왔지만 그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마음에 고향에 알려 두었더니 아침11시에 실종된 아버지는 오후 6시에 고향에 오셨다는 연락이 와서 산길을 달려 모시고 온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보냈어요. **전화기가 꺼져 버리면 기지국 근처에서 신호가 잡힌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날이기도 하네요. 지금은 전화기를 바꿔 친구찾기로 등록하고 주간보호센터에도 보내 드린답니다.

서구보건소와 함께하는~ 건강한 원고개 마을 이야기~!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소개합니다.~^0^

보건소에서 2019년 8월부터 원고개 주민협의체 회의에서 첫 만남을 가진 후 매월 건강생활실천사업(금연, 절주, 비만예방관리) 등에 대한 안내와 건강 교육을 했습니다. 보건소 사업과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 주민협의체 회원들은 “**보건소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구나~! 주변 이웃한테도 소개해야겠네요.~**”라며 주변 이웃에게 **건강정보를 알리고 홍보하는 건강리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금연·절주사업 홍보〉



〈비만예방관리사업 홍보·교육〉

건강생활실천 특강 ~*

2019년 8월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 교육장에서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을 주제로 한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싱겁게 먹기 및 건강한 식단관리 교육을 하여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구강질환의 발생원인과 효과적인 구강 예방관리법**”교육으로 교육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을 다함께 실천해 보아요~^*^



〈영양 특강〉



〈구강 특강〉

원고개 기억청춘마을 ~ ♡

원고개마을은 2019년 7월부터 서구치매안심센터 기억청춘마을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기관, 주민 등 9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구성(7월), 원고개도서관 치매선도도서관 지정(9월), 60세 이상 인지저하자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7월~현재), 원고개 시장 캠페인 및 기관교육(8월~9월) 등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마을~,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마을~** 이 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 전 직원이 노력 중입니다. **언제나 주민에게 열려있는 서구치매안심센터로 지금 방문해주세요~!**



〈인지강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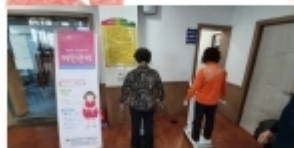


〈운영위원회 기관 교육〉

비산1동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 체력단련실에서 비만예방을 위한 체성분 분석 및 상담, 운동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손쉽게 비만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인 BMI를 계산했을 때 26인 사람은 21인 사람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여성은 8배, 남성은 4배에 달하며 고혈압 발생 확률도 2~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모두 건강을 위해 비만도를 계산해보고 운동을 시작하세요~!**

※ BMI = 몸무게(kg)÷키(m)² / BMI 25이상 = 비만, 23이상 = 과체중
(예시 : 몸무게 82kg, 키 172cm / BMI 82÷(1.72×1.72)=27 → 비만)



〈체성분 측정 및 상담〉



〈비만 예방관리 지도〉

원고개 건강 경로당 ~ ♪

보건소에서는 **원대 생활권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 등 5개소에 **찾아가는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치주질환 관리 및 예방, 틀니세척 및 사용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생활수칙, 낙상예방 등 **노년기 건강관리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실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반응이 좋았습니다. 보건소와 함께하는 건강 경로당을 통해 **건강하고 멋진 노후 생활**을 누리보세요~~!



〈장애 예방 교육〉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원고개 마음 지킴이 ~ ☆

보건소와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난 4월부터 원고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우리동네 마음건강지킴이를 양성하고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통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풀뿌리조직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 역량강화 생명지킴이 교육, 수료식 등 소정의 과정을 거쳐 양성된 마음건강지킴이는 정신건강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위험군을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음건강지킴이와 함께 서구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입니다~ ♥



〈마음건강지킴이 양성〉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 운영〉



원고개마을 사람 이야기

주민자치위원장 김진동 (담당 임미영)

원고개마을 도시재생사업이 1년을 남겨놓은 시점에 마을주민들은 마을의 변화를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하는 궁금증과 나는 그동안 얼마나 충실했는지 되묻고 싶은 날이네요.

골목마다 쓰레기와 전봇대 광고 부착물, 흉물스러운 폐공가, 길거리엔 담배꽂초, 북비산 네거리의 많이 모여 계신 어른들의 일상 생활, 언뜻 생각되는 마을의 모습이다. 그래도 지금은 골목길마다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주민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체감을 하고 계실까, 비봉초 뒤편 계단길이 예쁘게 꾸며졌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활발했다고 평가가 되는데도 주민들 일부만 알고 계시는건 아닐까,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고 벽화를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마을 축제도 개최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마을사람들이 얼마나 함께 하고 있을까, 마을 일을 하면서 늘 안고 있는 의문이다.

원고개마을 복지사랑방이 개소됨에 따라 우리 마을은 또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고 있고, 또한 곧 희망 공작소가 들어서면 다양한 사업도 구상이 되겠죠. 화분만들기 문패만들기, 사랑의 집고치기 등등... (너무 욕심이 과한가요?)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첫 사업으로 시작된 원고개 다락방이 항상 즐겁게 건강하게 잘 운영되고 있음에 늘 감사한 마음이다. 내년엔 마을 뮤지엄이 완성되면 또 새로운 명소가 되겠죠. 저 역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게 된다. 우리 마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집후기

구본녀

소식지 정리를 하다보니 2019년에 도시재생에서 많은 사업들이 있었네요~~다가오는 2020 년에도 원고개마을 화이팅 입니다^^

김영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은 동네에 훈훈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애정이 온 마을을 사랑으로 채웁니다. 이번 소식지를 만들면서 느낀 제 마음입니다. 2019년은 마을을 만들기위해 바쁜 한 해였다면 다가오는 2020년은 서로를 보듬어주고 빛나게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파이팅~~!!

문평경

회를 거듭할수록 이음 편집팀의 열의와 실력들이 점점 늘어나는거 같아요~올 한해도 무사히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 너무~~뿌듯합니다~~ 다음 마을소식지도 잘 만들어 보아요~~

박옥선

올 한해는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비산동이 넘 환해지고 밝게 빛났네요~다가오는 20년에는 더욱 더 발전되어가는 비산1동이 되길 바라며~~ 파이팅 입니다~♡ 우리 편집팀도 고생 많았습니다~♡

유미화

소식지를 준비하며 보니 우리 동네는 참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싶네요.. 2020년에도 더 활기차고 발전하는 행복한 비산 1동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화주

소식지 몇 번 더 만들면 우리 모두 작가로 등단하겠어요....소식지와 함께 편집팀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럭무럭~

임미영

5호 이음이 나온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또 한 해가 지나가려구 하네요. 2020년에는 더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편집팀과 원고개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은정

편집팀 식구들이 일사천리로 맡은 일을 너무 잘해서 소식지가 더 빛이 날 거 같아요~ 매번 새롭게 마을을 알게 되고 나날이 동네가 좋아지는 게 보여 감동받고 있습니다~ 이음 편집팀~사랑합니다~~





희망 원(ONE)고개마을 소식지